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하도록 되면서 점점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즉 술이라든가 담배등이 가져오는 악영향의 관심도 강조되어지고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술, 담배의 광고를 찾을수 없다고 까지는 말할수 없어도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되어가고 있다. 특별히, 자신의 행동때문에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논쟁 되어지고 있는 금연문제에 대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도 이와같은 논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신문이든가 잡지·광고등에서 금연캠페인을 때때로 볼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은 자기자신 혼자서는 살수 없는 하나의 공동생활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자연 보호 책임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책임 다른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등의 책임은 어떤 사람에게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법으로 정해서 까지 금연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하지만, 지금까지 아무일도 아닌것 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어떤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겠쥬. 때문에 가장빨리 이와같은 문제를 개선할수있는 방법으로 법을 생각한 것은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빠를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서서히 자기가 인식해가면서 개선하는 쪽이 반감도 없고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도 이렇다 라고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은 지금부터 모든 사람의 문제라 생각한다.

지금 내가 말할수 있는 것은 찬반을 논하는 것보다 제3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뿐이다.